

☆ 서사문학을 알게되면

국어 3-5등급을 위한 4월 주말반 개강합니다.

토요일 10시 ~ 2시 20분 (3시간 수업 + 80분 모의고사 : 4시간 30분) = 마감

일요일 10시 ~ 2시 20분 (3시간 수업 + 80분 모의고사 : 4시간 30분) = 모집중

일요일 개강 **4월 12일** 오전 10시

국어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문의바람...!!

3-5등급 친구들은 지문 읽는 법부터 바꾸면 됩니다.

총 4~5 개월 과정으로 모두 1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2등급도 가끔 나옵니다.

반드시 4-5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

해도 해도 안 되는 국어라고 힘들어 하는 친구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3-6등급 친구들은 대부분은 학습스타일에서 비롯됩니다.

절대로 머리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국어를 대하는 자세와 국어공부에 대한 처음 시작점이 잘못 잡혀서 굳어버린 학습스타일...

그것을 고치면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 됩니다.

어차피 할 거 목숨 걸고 따라올 만점 원정단을 모집합니다.

매월 단과가 시작되는 언제든 연락주셔도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고3/ 재수생 전문 대치 이름 국어논술 전문학원
그곳에 김현중 원장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ㅋㅋㅋ
☎ 02) 2051 - 2727 (카톡 아이디 : komusso)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④ 번째] **소설 문학 분석**으로 다가갑니다.

이 소설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폰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늘 해도 해도 안 되는 국어 때문에 고민 있고 괴로운 친구는 이왕이면 비문학, 시문학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자 들어갑니다. 소설은 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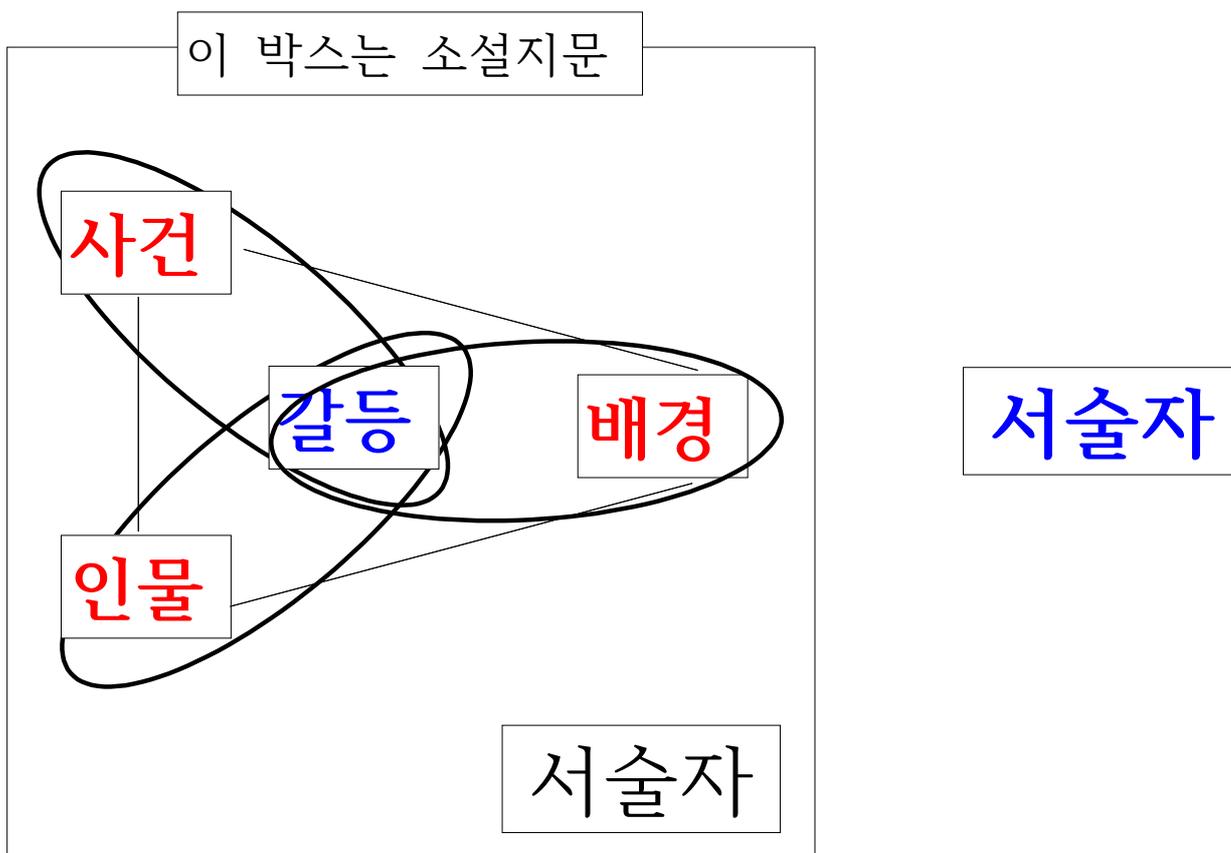
자 지난번 소설문학 칼럼에서

서사 = 사건을 서술한 글이고

= 사건은 반드시 인물이 일으키는 것이며

=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물과 배경이 있다...



=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소설 지문 속에는 바로 저 위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 거기다가 서술자의 시점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 그것은 생략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설을 그냥 외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눈뜨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배경지식, 분석노트...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소설 공부하는 친구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세요....

4-5-6-7등급은 눈 아주 크게 뜨고 입 크게 벌리면서 큰 소리로 따라 외치면서 읽고 또 읽고 메모도 하세요..... 그래야 .. 그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

수업 버전으로 합니다. 반드시 ①②를 읽고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전소설 2015년 기출 A형 소대성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신 후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설의 상위개념은 서사입

니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자 우리는 수능 날이든 모의고사 날이든 위와 같은 소설지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 본 것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읽고 풀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줄거리와 상황 판단하면서 풀어도 소설은 쉬우니까 감 잡아서 풀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외운 문학 지식으로 푼다고 하는데 ... 만약 처음 보는 소설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방법이죠...정말 가진 것 없는 불쌍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하면 답이 맞고 성적이 오르면 굳이 반박할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은 능력을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이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시험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지문을 과거에 봤던 지문인지 안 봤던 지문인지를 따지지 말고 EBS 연계지문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문학시간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의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만 떨어지게 됩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처음 보는 소설이 주어집니다. 저 위와 같은 고민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소설을 만나면 무엇을 찾는다 ?

인물과 배경과 사건(갈등), 그리고 서술자만 찾으면 됩니다.

그것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주어진 시간 2분 30초 ~ 3분 사이에 우리는 명쾌하게 소설을 분석해서 그들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하면 됩니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1-3줄 : 승상(인물) 나옵니다. 간단한 배경나옵니다. 그곳에서 잠에 들고 어느 곳으로 갑니다. 낚시터입니다. 실제 배경이 아니라 꿈속의 배경입니다.

4-6줄 : 그 낚시터에 청룡이 있다가 놀라서 날아갑니다. 거의 3류 영화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깹니다. (비현실적 배경=전기적)

=== 별거 없습니다. 서술자는 독자에게 인물제시하고 배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물에게 특별한 브레이크(갈등)는 없기 때문에 사건은 없습니다.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㉔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

[A] 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1-7줄 : 문장으로 한문장입니다. 실제 배경인 낙시터로 인물이 나아갑니다. 거기에 어떤 아이 등장하고 외면묘사를 보니 거의 거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물은 그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서술자는 아이의 외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기법입니다. 그리고 연극으로 바로 옮겨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극적제시도 됩니다.

=== 아직도 별거 없습니다. 인물 2명 나오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브레이크 거는 일은 아직 없고 배경이 꿈속과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는 아주 쉽게 여기까지 옵니다.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㉕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되 삼고초려한 유황 속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1-6줄 : 아이가 참 싸가지 없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형산백옥(보석)으로 비유하면서 돌 속에 있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이 없다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좀 컸나봅니다.

===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1-4줄 : 그 아이 목소리가 탈속한 느낌.. 인물을 좀 띄우고 있죠 ?... 그리고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것이 직접제시입니다. 직접 말하기 기법으로 그 아이는 탈속한 아이다라고 독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승상이 일어나라 합니다. ... 그냥 갑시다...

“어떤 사람이관데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1-5줄 : 아이는 역시 싸가지입니다. 승상이 이런 싸가지 봤나? ..했습니다.

6-8줄 : 승상이 자기 내면을 통해 아이의 외면에서 영웅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9줄 :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승상이 하는 말도 아니고 아이가 하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서술자가 하는 말입니다.

=== 역시 두 인물의 만남을 얘기할 뿐 특별한 갈등(사건)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1분도 걸리지 않은 채 주욱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초반에 말했던 어떤 사람처럼 진짜로 그냥 읽고 풀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지금은 그냥 읽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읽기 보다는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배경제시... 사건 파악... 이런 시각으로 지문을 읽고 있습니다. 별거 없지만 그냥 읽어 나가게 되면 문제풀 때 다시 지문을 읽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1-4줄 : 중략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인물, 배경, 사건(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중략 이전 사건 1개, 중략 사건 1개, 중략 이후 사건 1개.... 이 소설은 최소한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물론 더 많습시다만 보여지는 것은 3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가끔 보기 선지로 [윗글은 여러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라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은 갈등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앞에 부분에서는 갈등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건이 되느냐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학계에서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모두 갈등이 없었다 해도 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

건 덩어리 3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설령 처음 부분에 사건이 없었다 해도 2번째, 3번째에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걱정 끝...

1-4줄 :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키워주고 사위로 삼습니다. 갈등 X
아들들은 소대성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대성을 둘러싼 환경이 또 호란이 일어나 배경과의 갈등이 생겨서 전쟁에 출정(사건)을 하게 됩니다. 중략 부분만 해도 사건이 최소 2개 이상입니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1-끝줄 : 소대성과 동자는 그냥 지나갑시다. 빨리 읽으면 15초 걸립니다. ㅋㅋ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생이
[B]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㉔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1-끝줄 : 소대성과 노인(승상:장인)사이에는 당연히 갈등 없지요 ? 서

로 반가워합니다. 장인의 기쁘고도 슬픈 감회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이니까 ?...비현실적이니까 ?... 죽은 사람과의 만남...역시 전 기적인 표현입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1-끝줄 : 승상이 내 아들들과의 갈등을 없애고 사건을 끝내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는 영웅이라고 띄워주고 딸을 버리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고 갑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1-끝줄 : 전쟁에 나가는 사위에게 갑주를 줍니다. 갑주가 아주 특별합니다.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위 사랑이 대단합니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총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견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
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총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1-끝줄 : 검도 주고 보신갑도 주고...그러나 청총마는 아직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별거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
고 바빠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 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1-끝줄 : 청총마는 동해용왕이 가져온다... 내일 오시에 받아라... 그리
고 황제 위태하니 공을 세워라.... 여기까지가 꿈 속 얘기입
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 꿈은 꿈인데.... 진짜로 갑옷과
투구가 놓여있습니다. 참 3류 영화치곤 너무하죠...!!ㅋㅋ

=== 역시 인물과 인물간의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소대성과 전
쟁이라는 배경이 갈등을 일으킨 인물과 배경과의 갈등입니다.

=== 서술자는 고전소설은 무조건 전지적 작가시점이니까 지문 밖에서
모든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며 가끔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
과 사건에 대한 논평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인물을 제시할 때

직접제시 (말하기)와 간접제시(보여주기)를 사용하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이 작품에 대해 정리해 놓은 필기를 보면 이 작품은 일반적인 영웅의 일생을 모티브로 한 군담 소설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군담 소설이 지닌 전형을 따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인공 대성이 이 승상의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나오는 대목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이 흥중에 큰 뜻을 품고 있다가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는 인물 설정은, 지체나 처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 고난을 극복한 영웅의 활약상

(대성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고 이를 돕는 승상).....

===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정리 안해도 됩니다. 분석노트 사서 밑줄 긋고 열심히 외워도 문제 풀 때 아무 도움 안됩니다. 아셨죠 ?....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서사의 한 지문을 인물, 사건(갈등), 배경, 서술자에 대해 조금씩 분석하면서 제시문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읽어 가는 시간과 분석 시간이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지문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출제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수하게 읽어가는 시간이 2분 30초라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분석할 수 있었을까요 ?..... 결국 서사의 3요소밖에는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동

안 우리는 인물, 사건, 배경과 서술자.... 이 분석시간이 30초 안팎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 그러니 다른 것을 고민할 시간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34.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서술상 특징 : 서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결국 서술자에 대한 문제죠 ?.... 역시 서사의 3요소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서술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보이죠 ?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를 물어봅니다.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 외양 묘사 O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 기쁘면서도 슬픔을 전달함... O

=== 답입니다.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 대구가 없습니다. X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부정적 인식도 없습니다. X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 요약적 서술 X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시대적 배경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X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 대화 없습니다. X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갈등도 당연히 X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 [A] 회상 X , [B] 회상 O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사건과 전혀 무관...X

35.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총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 역시 서사문학답게 인물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인물에 대해 독자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물어보는 감상 문제입니다.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 여기까지가 인물의 간접제시 부분입니다.

///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당연히 따뜻함을 느낍니다.

=== 답입니다.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 승상은 아들들이 과오를 범했지... 본인 자신이 범한 과오는 없습니다.

///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볼 필요 XX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 공명을 이룬 다음 신의를 지켜달라.... 부탁하죠..... ///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볼 필요 XX

④ ‘청총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

군.

=== 나머지 여러분이....

36.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역시 서사문학답게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 중에서 이번 문제는 배경문제입니다. ㉠ ~ ㉡ 모두가 다 배경관련 단어입니다.

===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지 앞에서 모두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3점짜리 맞는 절대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못 푼다면 ... 이 칼럼은 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어부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 ~ ㉡... 가 먼저 나오고 그것에 대해 보기관점으로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보 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꿀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아갔으니, // ㉠와 ㉡의 배경은 그대로 본문에서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 // 꿈 속 공간으로 이해했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이걸 ㉠와 ㉡의 배경을 보기 박스에서(5-6줄)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 꿈속 낚시터는 실제 낚시터... 맞습니다. ///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그 낚시터가 맞다면 청룡은 당연히 아이입니다. 이것은 보기 박스 (7-9줄)에 나타납니다.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 본문에서도 맞습니다. ///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보기 박스 초현실 공간(1-2줄)에 나타납니다.

④ ㉢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 현실공간임 ㉤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OK = 답입니다.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에 ㉣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도 함께 사라졌군. /// 이걸 여러분이 하세요....

37. ㉣의 화자에게 ㉤을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굶餓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듯이, 네 재주로도 할 일은 있을 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 ②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고 하듯이, 운수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아라.
- ④ '차면 넘친다'라고 하듯이, 지금 너의 괴로움은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줄이면 나아질 거야.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듯이, 너의 용기는 무모하니 현실을 직시하면 성공할 날이 곧 올 거야.

이걸 여러분이 하세요... 답 2번입니다.

대치 이룸학원 4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반 모집

대상 : 국어영역 3~5등급 이하인 친구들... / 고 3학생과 재수생 및 N수생...(예체능 포함)

진짜 단기간에 1등급으로 올라야 하는 친구 / 독학 재수생으로 국어 공부 혼자서 못하는 친구

과정 : 4개월 ~ 5개월

수강료 : 주 1회, 4시간 30분 ... (25만원)

4명만 모여도 개강합니다. 정원 총 8명 전후 (1-2명 초과가능)

얼굴 마주보며 하는 수업이고, 단기간에 국어 자신감을 가지게 됨.

장소 : 대치 이룸학원 (대치동 977-14) (지도 검색 후 문의해주세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위치 알려드립니다.)

내용 : 비문학 과정 3주 + 1주 / 시문학 과정 3주 / 소설문학 과정 3주 / 문학총정리 2주

작문 과정 2주 / 문법 과정 4주

어떻게 읽는지 알려줍니다. 읽는 법을 몰라서 3-5등급입니다.

쟁판 모르는 시, 소설 특히 고전시가와 고전소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학습 스타일을 바꾸면 국어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그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처럼 마닿, 나비#\$% #... 이런거 읽는다고 해서 등급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거라면 전문가를 믿고 따라오세요...

교재 : 평가원과 기출문제 + EBS 연계교재

5개년 기출문제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분석합니다.

제 칼럼 보셨듯이 학생들에게 매시간 지문 분석 칼럼 내용 배포

EBS 교재는 과제용과 질문용으로 풀니다.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립니다.

청솔, 노량진 한샘, 비타에듀, 대성학원 재수 종합반에서 23년간 강의를 해오고

수년간 메이저 사이트에서 인강을 찍어 온 강사겸 원장입니다. 과거의 기록은 빼고 현재 활동만 소개합니다.

현 오르비 클래스 인터넷 강의 (오르비 스타강사, 국어과 1타강사)

현 www.nonsulhara.com 독학 논술 전문 사이트 대표

(논술 무료강좌 탑재, 29개 대학 논술 인강 탑재, 논술 첨삭 강좌 탑재)

현 대치 이룸 국어논술 전문학원장 (대치동 소재)

현 23년차 수능강의와 논술강의

저서

블랙박스 수능헌터 언어영역 / 퍼스트 실전 수능언어 (비타에듀) / 한샘 골드 문학 / 한샘 문학자습서

교학사 끝내주는 언어영역 / 교학사 스피드 내신 국어 상하 / 교학사 수능의 달인 실전 모의고사

교학사 청출어람 수능시리즈 / 늘품출판사 논술서 시리즈 등 ...

지긋지긋한 국어 3~5등급 탈출을 꿈꾸는 친구들은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이번에 국어 논술 전문가와 함께 날개달고 날아봅시다.....!!

전화 : 010 - 6236 - 0467

카톡 아이디 : komusso